

# 山林經營會報

發行人：韓 榮 錫  
 主 幹：崔 東 均  
 發行處：韓國山林經營者協會  
 住 所：서울 麻浦區 桃花洞 18-2  
           서울대학교 동창회관내  
 電 話：702-4301

## 山林廳 國政監查 消息

### 國有林 造林貸付地 讓與中斷 事由는 公園등 私有林에 대한 補償對策은 不在山主, 放置 私有林에 대한 對策은

國會 農林水産分科委는 지난 10.6 山林廳에 대한 國政監查를 實施하였다.

이는 16年만의 오랜만에 實施되는 國政監查여서인지 豐盛한 말의 盛饌이 오고 갔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主要 대목만을 간추려 본다.

朴載圭(민주)의원은 國有林 造林貸付地에 造林이 成功하면 無償讓與 한다고 해놓고 1973年부터 이를 中斷, 每年 地價의 3%에 해당하는 貸付料만 받아들이므로써 國民을 기만하고 國民의 재산을 찬탈한 것이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山林行政 不信풍조를 조장시킨 造林貸付林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적법한 보상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盧建一 山林廳長은 政府施策이 處分 爲主에서 保存爲主로 전환된 適法한 措置이며 貸付料도 1973年부터 1%로 낮추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國有林 造林貸付 制度는 舊 山林令과 1962年에 制定된 山林法에 따라 造林이 成功한 貸付地에 對하여는 無償讓與할 수 있도록 되었던 것이 그 以後의 山林法 改正과 政府 施策方向 轉換에 따라 1973年부터 讓與가 中斷되어 오므로써 그동안 많은 受貸付者들의 民願(怨)의 對象이 되어 왔고 本會는 물론, 韓國林政研究會를 비롯 많은 團體들이 共同으로 關係要路에 建議書를 내는등 爭點이 되어 있었다.

그밖에도 公園, 保安林 등 私有財産權이 規制된 法定施業制限林에 대한 補償對策, 造林活性化對策, 山林組合活性化方案, 林道施設이 豫算執行에 比하여 不振한 事由 不足한 豫算에 豫備費 14億을 不用額으로 處理한 事由 (80~87年), 山林豫算의 未治, 솔잎혹파리 防除對策, 山地人夫賃單價의 現實化 方案, 財伐企業의 山林所有面積 등을 여러 의원들이 집중 따져 물었다.

## 밤값 안정과 소비촉진을 위한 밤분말 가공공장 설립

3개소 13억9천만원 지원

산림청은 연간 7만톤씩 생산되는 밤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요촉진을 위하여 연간 1만5천톤의 밤 분말 생산공장 3개소를 설립토록 13억9천2백만원을 지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밤은 연간 7만톤씩 생산되어 3만5천톤은 일본등지로 수출하고 가격의 등락폭이 크므로 이를 해소하고 밤의 소비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밤주산지에 분말 가공공장을 설립토록 했다.

농어촌 개발기금에서 13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1차로 경남 하동 비파에 연간 5천톤 처리시설의 분말 가공공장을 설립하였으며 현재 경남 산청과 충북 청원에 각각 5천여톤 생산능력의 밤분말 가공공장을 설립중에 있어 '89년부터 생산에 들어 갈수 있게 됨으로 연간 1만5천톤의 밤을 분말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山林經營用語

• 法正林 (Normal-forest): 材積收穫의 嚴正保續을 실현할수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갖춘 山林

例. 伐期令이 60年일때 매년 일정량을 벌채하여 일정량의 伐採收穫량을 얻으면서 그 伐採跡地에 매년 일정량의 造林을 해나가면 伐期令은 60年이고 수확량은 嚴正保續生産이 되며 그 林相은 法正林상태가 된다.

이를 위하여는 法正令級配置 (各年齡의 林分의 面積이 같은것), 法正林分配置, 法正蓄積, 法正生長量의 4要件이 갖추어져야 한다. 山林經營의 目標을 이러한 法正林에 들때 이를 法正林思想이라 한다.

# 송이 버섯 採取로 山村民 所得增大

800여톤 생산, 300억 농외소득

송이 버섯은 옛부터 향기, 색깔, 모양과 營養이 뛰어나 山蓼과 맛먹는 靈物로 취급되어 온 完全無公害 自然食品으로 人工栽培가 不可能할뿐 아니라, 송이는 深山溪谷의 腐植層이 발달된 20-50년 이상되는 소나무 林地에서만 生産된다.

일반적으로 송이는 7월중순 부터 8월초까지 발생하는 여름송이와 8월말부터 10월말까지 발생하는 가을송이가 있으며, 연간 600-1,000톤이 生産되어 대부분 日本에 수출, 2,000-4,000만불의 외화를 벌고 있다.

작년의 경우 657톤을 생산 566톤을 수출 4,000여만불의 외화를 획득하였고, 올해에는 800톤을 生産 4,200여만불을 수출하여 300억여원의 農外所得을 올릴 計劃이며 公판금액이 kg당 70,000여원이나 되어 쇠고기의 약 10배상이 될뿐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아 一般工産品이나 電子製品을 수십억불 수출하는 실적과 맞먹는 것이다.

송이 버섯이 生産되는 地方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한 江原道 고성, 명주, 양양, 삼척 및 인제, 양구, 화천군과 慶北의 울진, 봉화, 영일, 忠北의 제원 보은등이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生産되는 곳으로는 경북, 봉화, 울진, 강원도, 양양, 삼척등이다.

이처럼 값비싼 송이를 보다 더 많이 生産하기 위해선, 송이가 발생하는 소나무림을 잘 管理하고 환경을 改善해 나가야 한다.

송이는 소나무 뿌리에 寄生하는 菌이므로 나무의 樹勢가 나쁘면 生育에 必要한 養分을 충분히 얻을 수 없으므로 소나무 가지의 생김 모양이 굵고 늙름하게 되도록 키워야 한다. 또한 소나무 간벌은 成林이 되기까지 2-3회 실시하여 좋은 송이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년도별 농가소득 현황

년도	生産量 (톤)	수출량 (톤)	농가소득액 (백만원)	비고 (수출액)
'85	1,313	1,091	27,501	(32,831 천불)
'86	311	299	26,344	(30,272 천불)
'87	657	566	30,481	(40,253 천불)

## 新品種 開發로 호도 生産이 늘고 있다.

山林廳에서는 호도나무에 대한 優良個體 選抜과 導入 品種 適應 試驗으로 호도가 在來種보다 2 - 3 배가 크고 추위에도 강한 品種을 開發하므로써 生産增加로 農外所得이 늘어날 展望이다.

山林廳 林木育種研究所에서는 農山村所得 增大을 위하여 在來種 호도나무에 대한 優良個體 選抜과 美國 등지에서 導入한 호도나무를 適應試驗한 結果 在來種보다 크기가 2 - 3 배 크고 특히 추위에 강한 代釜 1 - 3 호 등 新品種을 開發하여 1983年부터 普及하고 있다.

現在 우리나라에 식재된 호도나무는 3 백 17 만주로 지난해에는 972ton의 호도를 수확해 53億원의 農外所得을 올렸고, 금년에도 作況이 좋아 수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豫想된다.

특히 山林廳에서 1983年부터 금년 봄까지 보급된 新品種 호도나무는 170 ha에 47,600 본으로써 이것이 결실을 맺는 1,990년도부터는 수확량이 크게 늘어나 農家所得 增大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호도는 植物性, 脂肪, 蛋白質 食品으로 옛부터 補強 滋養제로 使用하여 왔을뿐 아니라 특히 콜레스테롤 제거로 成人病 豫防과 두뇌의 記憶力 增強物質인 피지 (PG)를 만들어 老化防止에 效驗이 있고, 患者나 추위를 타는 사람에게도 매우 效果가 크다.

또한 無機質과 비타민도 풍부해 피부등 美容에도 좋을뿐 아니라 中年期 最高 스테미너 食品으로 크게 인기를 모으고 있다.

### ○ 選抜 育種 品種

구 분	품 종	입 중	인 중	인 중 비
國內選抜種	산성 1 - 4 호	11.0 - 12.6	5.4 - 5.7	45 - 49
	풍한 1 - 5 호	11.4 - 13.8	5.3 - 6.3	45 - 53
	상촌 1 - 5 호	11.2 - 13.7	6.1 - 6.8	48 - 53
	무풍 1 - 9 호	11.9 - 17.0	5.7 - 8.2	45 - 50
	대부 1 - 3 호	12.2 - 13.7	6.1 - 7.2	50 - 53
	광 덕	12.3	6.2	54
	봉 화	11.4	5.5	48
도 입 종	레이크 (Lake)	23.4	10.1	43
	맥킨스타 (Mckin ster)	14.9	6.8	46
재 래 종	-	7.8	3.2	41

## 각종 成人病 豫防 , 피부도 아름답게

수확기를 끝낸 山間 農家에선 잣 生産이 한창이다. 지난해 785 t을 生産 43 億 5 千 6 百萬 원의 所得을 올렸으나 올해는 結實이 좋아 지난해 보다 30 여% 增加한 1,000 여 t 이상이 生産, 農家所得이 크게 向上 될 展望이다.

잣나무는 산의 중턱이나 골짜기 사이의 비옥한 땅에 잘 자라는데 우리나라를 비롯 日本, 中國, 시베리아등 아시아 東北地域에 주로 分布돼 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약 23 萬ha를 식재 年間 700-1,000 여 t의 잣을 生産하고 있다.

잣은 예로부터 海松子라고 하여 약용으로 널리 使用돼 왔는데 五葉松子, 相子, 상봉송 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生産되는 잣은 향기가 특히 좋아 新羅때는 唐나라에 조공품의 하나이기도했다. 음력 정월 열나흘날밤 그해 열두달을 象徵하는 잣 열두알을 바늘로 꿰매 불을 켜서 밝으나, 어두우냐에 따라 吉凶을 점쳐보던 잣불놀이는 지금까지도 民間풍습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잣은 江原道 흥천, 京畿道 양주, 가평, 포천이 주산 園地이며, 지난해 785 t을 生産했는데 올해엔 結實이 좋아 30 %정도 증수될 豫定이다.

最近에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잣이 大量 出荷되고 있는데 껍질을 벗긴 실백 上品이 都 賣價格으로 10 ㄷ에 90.000 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잣은 지방 64.2%, 단백질 18,6%, 水分 5.5%, 당질 4.3%, 회분 1.5%, 其他 섬유질, 칼슘, 인, 철분, 비타민 (A, B1, B2)이 들어 있으며 잣 1 ㄷ에서 약 670 kal의 열량이 나오기 때문에 高칼로리食品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血液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 動脈硬化등 각종 成人病 豫方에 효과가 크다.

明나라때의 醫書인 [本草綱目]에는 [잣은 단맛과 향기로움이 있으며 따뜻한 성질이 있어 어지러움증과 뼈마디에 쌓인 風 (관절염)을 다스린다]고 기록돼 있다.

따라서 잣은 老化現象이 일어나는 中年期 以後에 좋은 藥用食品이라 할 수 있다.

잣은 맛이 고소해 껍질을 벗기고 그냥 먹든지 잣죽, 잣엿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다. 最近에 는 國內 食品 業體에서도 잣을 이용한 각종 加工食品을 生産 市販하고 있다. (자료 : 산림청)

## 참 나 무 類

임업연구원 육림부

### 1. 특 성

참나무류는 우리나라 활엽수의 대표적인 수종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종류는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등이 있고 종간에 교잡이 잘 되므로 수많은 변종이 있어 수종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참나무류는 옛날부터 연료나 농기구재료로 없어서는 안 될 나무였으나 최근에는 활엽수목재의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고급용재로 무욕하고 있다.

맹아력이 강하고 종자발아도 잘되어 천연갱신이 용이한 수종이다.

목재는 나이테가 뚜렷하고 심재는 암적갈색 또는 회갈색이며 변재는 회백색 또는 황갈색이다. 재면은 참나무 특유의 아름다운 호랑이 무늬를 가지고 비틀림이 크나 강도가 높아 가구, 마루판으로 아주 좋다. 가구재, 건축재, 토목용재, 기구재, 차량재, 선박재, 단판재, 버섯골목, 마루판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잎은 떡싸개(떡갈나무) 사료, 염색제로 쓰이고 나무껍질은 콜크(굴참나무) 염료 탄닌의 원료가 된다. 종실(도토리)은 식용으로 옛날에는 식량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2. 적 지

참나무류는 우리나라 전국에 조림이 가능하고 산복이하의 토심이 깊은 비옥지에서 잘 자라지만 메마른 땅이나 산성토양에서도 잘 견디므로 조림이 가능하다.

상수리나무는 구릉지, 산록부에서 잘 자라고, 굴참나무, 졸참나무는 산복부에서, 신갈나무는 산악지 고산지대에서 잘 자란다.

### 3. 種子採取

참나무類는 變種雜種이 많으므로 用材林으로 造林할 경우는 樹幹形質이 좋은 나무에서, 신갈나무는 8月, 상수리, 굴참, 갈참, 졸참나무는 9 - 10月中에 種子를 採取해야 한다.

種子是 充實하고 큰것이 發芽後生長이 良好하다. 種子が 乾燥하면 發芽力이 低下되므로 採取 即時 2 硫化炭素 ( 1 m當 80 g )로 24시간 浸漬해서 殺蟲시킨 후 乾砂와 混合하여 貯藏하였다가 播種 1 個月前에 露天埋藏한다.

### 참나무類 種子 品質

樹 種	純量率	容積重	實 重	粒 數		發芽率	效 率
		( 1 ℓ 當 )	(1,000粒當)	1 ℓ	1 kg		
	%	g	g	粒	粒	%	%
상수리나무	89.2	598.86	3,931	159	266	57.4	51.2
굴참나무	75.1	590.40	3,776	161	273	56.6	42.5
신갈나무	77.6	508.34	2,278	235	462	52.2	40.5

#### 4. 養苗施業

播種은 點播, m當 상수리나무는 478 g ( 0.8 ℓ ), 굴참나무는 242 g ( 0.4 ℓ ), 신갈나무는 406 g ( 0.8 ℓ )을 播種하고, 상수리 굴참은 m當 90本, 신갈나무는 64本을 殘存시킨다.

참나무類는 細根發生이 적으므로 播種前에 幼根을 切斷하고 播種하면 細根發生이 많아지며, 1回 床替하여 1 - 1 苗를 植栽하면 活着率이 높아진다.

#### 5. 조 립

맹아갱신과 천연하중 갱신이 잘 되고 실생묘를 양묘하여 인공조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맹아갱신을 할 때는 벌근을 낮고 평활하게 하여 뿌리목에서 맹아가 나오도록 하면 상수리나무와 굴참나무는 갱신근이 나와 부패된 벌근과 분리되므로 실생묘 ( 實生苗 )와 같이 장 벌기로 무육해도 속이 썩지 않고 잘 자랄수 있다.

천연하중갱신은 잡초와 잡관목을 제거하고 땅을 끊어주면 종자발아가 잘된다.

인공조림은 뿌리가 직근성 ( 直根性 ) 이고 실뿌리가 적기 때문에 심어도 활착율이 나쁘므로 단근을 하거나 직근을 자르고 묘포에 옮겨심었다가 2년생으로 심으면 활착율을 높힐 수 있다. 헥타당 3,000 본을 심는다.

## 6. 풀 베 기

천연갱신을 하거나 인공조림을 하거나 풀베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잡관목과 구별이 잘 안 되므로 특히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풀베기는 3년간 실시하는데 6월과 8월에 2회 실시한다. 맹아갱신 한 곳은 3년차에 본수조절을 해주어야 한다.

## 7. 잡목 솎아베기

풀베기가 끝난후 5~6년이 되면 잡관목이 번무하고 불량형질목이 발생되므로 잡목 솎아베기를 해준다.

## 8. 가지치기

밀도가 높은곳은 자연낙지가 잘 되므로 가지치기를 생략할 수도 있으나 가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본수가 적어서 자연낙지가 잘 안된곳은 가지치기를 해준다. 가지치기 높이는 줄기의 직경이 6센치미터정도 되는 곳까지 실시하며 반듯이 톱으로 줄기에 바짝 붙혀 잘라준다. 가지중에는 붙어있는 곳이 약간 부풀어 있는 지용부가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에는 지용부를 남기고 잘라주어야 한다.

## 9. 간 벌

참나무류는 15~20년이 지나면 직경이 10센치미터내외가 되는데 표고자목 갱목등 일 반용재 생산임지는 간벌후 잔존기준본수에 맞추어 간벌을 실시하고 장벌기 대경재 생산을 목표로 하는 우량임분은 벌기까지 잔존시킬 미래목을 100본내외 선정하고 미래목 생장에 방해가 되는 나무만 제거하는 도태간벌로 실시한다.

간 벌 후 잔존 기준본수

흉고직경 (cm)	8	10	12	14	16	18	20	22	24
헥타당본수 (본)	1,145	989	896	816	733	659	599	546	500



## 솔나방 (송충)

### 가. 가해수종

소나무, 곰솔, 리기다소나무

### 나. 가해상태

- 4월 상순부터 7월 상순까지, 8월 상순부터 11월 상순까지 유충이 잎을 갉아먹으며
- 일생동안에 평균 64 m 정도의 많은 솔잎을 먹는다.

### 다. 생활사

- 1년에 1회 발생한다.
- 월동유충이 4월 상순부터 잎을 가해하기 시작한다.
- 6월 상순부터 번데기가 되며, 번데기의 기간은 20일 내외이다.
- 나방(성충)은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에 나타나고, 나방(성충)의 수명은 7~9일 정도이며 500개내외의 알을 솔잎위에 무더기(60~80개정도씩)로 낳고 죽는다.
- 난기는 5~7일이고, 부화율은 99% 내외이며, 8월 상순부터 어린 유충이 솔잎을 가해하기 시작한다.
- 어릴때는 솔잎의 한쪽(엽육부분)만 먹고, 자라면 끝에서부터 모조리 먹는다.
- 11월초 기온이 10℃ 이하로 내려가면 나무줄기를 따라 내려와서, 지표부근의 나무껍질사이, 돌, 낙엽밑에서 월동한다.
- 생활경과표

월 별 상태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동 유 충	←————→										←————→	
가 해 유 충				←————→				←————→				
번 데 기							←————→					
성 충								←————→				
알								←————→				

라. 방제방법

(1) 약제살포

춘기 ( 4 월중순~6 월중순 ) 와 추기 ( 9 월상순~10 월 하순 ) 유충이 솔잎을 가해할 때 다음과 같이 약제를 살포한다.

약	종	ha 당 사 용 량	희석비율	사 용 장 비
주론수화제	25 %	166 gr	6,000 배	항공기·분무기
트리트론 "	25 %	166 gr	6,000 배	"

(2) 슈리사이드 살포

병원성 세균인 슈리사이드 ( *Bacillus thuringiensis* ) 1,000 배액을 유충가해기에 수관에 살포한다.

(3) 유충포살

춘기 ( 4 월중순~7 월상순 ) 유충이 소나무잎을 가해할 때 솜방망이로 석유를 묻혀 죽이거나 집게 또는 나무 젓가락으로 유충을 잡아 죽인다.

(4) 병원미생물살포

○ 6 월중 일기가 좋은 날을 택하여 살포한다.

○ 살포방법

· 450cc 보조액 1 병에 미생물 ( 송충폐사체분말 )

100cc ( 1 봉지 ) 를 혼합하고

· 혼합된 병균액 30cc ( 보조액병 뚜껑으로 1 컵 ) 에 물 36 ℓ ( 약 2 두 ) 비율로 혼합하여 유충이 가해하고 있는 피해입목에 분무기로 살포한다.

· 보조액 1 병 ( 450cc ) 과 미생물 1 봉지 ( 100cc ) 의 혼합액으로 2 ha 를 방제할 수 있는데, 2 ha 내에서 유충의 밀도가 높은 15 개소를 선정하여, 1 개소당 200 평 정도씩 살포한다.

(5) 번데기 채취

6 월 하순부터 7 월 중순 소나무잎에 붙어있는 고치속의 번데기를 집게로 따서 죽이거나 소각한다.

(6) 성충유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성충활동기에 피해임지내 또는 그 주변에 수은등이나 기타 등불을 설치하고 그 밑에 물그릇을 놓아 나방이 빠져죽게 하거나 흡입포충기를 설치하여 나방을 유살한다.

(7) 알덩이제거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성충이 소나무잎에 무더기로 놓아논 알덩이가 붙어있는 소나무 가지를 잘라서 죽이거나 소각한다.

(8) 잠복소설치

○ 설치재료

가마니, 거적, 벚짖, 새끼줄

○ 설치시기

기온이 10℃ 이하로 내려가서 유충이 월동하기 위해 수간을 따라 내려오기 이전인 10월중에 수간에 월동처(잠복소)를 만들어 주고, 다음해 이른봄(2월하순부터 3월 상순) 유충이 활동하기 이전에 잠복소를 제거하여 월동유충을 소각한다.

○ 설치방법

가마니, 거적 또는 벚짖을 지상 1m 정도 높이의 수간에 폭 30cm(벚짖의 경우는 두께 3cm)되게 상·하를 새끼줄로 묶는다. 하부는 설치후에 새끼줄이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단단히 묶은후, 위로 걸어 올려 상부를 묶되, 상부는 유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느슨하게 묶는다.

○ 잠복소제거소각

전년도 10월에 설치한 잠복소를 이른봄 3월 상순 이전에 제거하여 월동유충을 소각한다.

〈協會費 納入案内〉

計座番號

- 조 흥 은 행 : 397-1-002092
- 서울신탁은행 : 19501-84009872
- 농 협 중 앙 회 : 001-01-025926
- 국 민 은 행 : 093-24-0025-624
- 우 체 국 : 011809-0014780-12

## 〈會員公知事項〉

### 독립가 및 표창후보자 추천

山林廳은 모범독립가의 신규인정과 산림경영이 우수한 독립가를 선발하여 격려하고 투자 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88.10.30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토록 각 시도에 지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도당 각각 1인 이상씩 추천토록 하였는데 표창훈격은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산림청장 표창으로 되었으니 해당되는 회원께서는 관할시도 산림당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業 相談 利用案內

本會에서는 會員의 權益保護와 林業全般에 걸친 相談에 應하고 있아오니 많은 利用을 바랍니다. (연락처: 702-4301)

### 林業界 消息

○ 養苗세미나 開催: 韓國養苗協會 (會長 金命源)는 10.13 ~ 14까지 忠北大學校 農大에서 全國 會員과 學界 人士들을 초빙 養苗에 關한 세미나 開催.

○ 山林病害虫 防除研鑽會 開催: 山林廳은 '88.10.27 ~ 10.28일까지 경기도 임업 시험장에서 시도, 영림서등 방제담당관의 山林病害虫 防除 연찬회 개최

○ 第12回 育林의 날: 山林廳은 오는 11.5 ~ 11.11 (7日間)까지 1주일간을 育林週間으로 設定하고 범국민 育林운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 技能人 作業園 도급운동에 關한 세미나: 山林廳은 지난 10.7 강릉에 있는 임업기계훈련원에서 작업단 도급운동에 關한 세미나 개최

### 會員動靜

○ 金基運 本會 理事 (百濟藥品 會長)는 구로구 신도림동에 百濟빌딩을 신축하고 事務室을 이전한데 이어 지난 서울올림픽때 女子핸드볼팀이 금메달을 획득하여 경사가 겹쳤다. 이는 국가대표팀에 차감독을 비롯 선수 7명이 百濟藥品그룹 계열사인 草堂약품 선수들로 주전을 이루웠기 때문. (전화 862-0211~5)